

임실N치즈 프리미엄화 발판 마련 학대 피해 아동 회복 지원 강화

임실군, 국립축산과학원 저지종 젖소 5두 추가 입식... 지난해 이어 6두 확보

임실군의 저지종 젖소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임실N치즈 프리미엄화에 발판을 착착 다져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이 제공한 저지종 젖소 5두를 성수면에 소재한 전문 목장에 추가 입식했다. 이번 저지종 젖소 입식은 임실N치즈의 프리미엄화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핵심 전략 사업이다. 작년에 입식된 1두를 포함해 지금까지 6두의 저지종 젖소가 도입됐으며, 앞으로 2027년까지 총 16두가 임실군에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임실군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체결한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저지종 젖소 1두를 포함하여 동결수정란 30개를 지원받은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도입된 젖소는 모두 우수한 A2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A2 저지유 생산이 가능하다. A2 유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체내 소화 및 흡수가 잘되고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도 적합하다는 평



임실군은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한 저지종 젖소 5두를 성수면에 소재한 전문 목장에 추가 입식했다.

가를 받으며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된 저지종 젖소는,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의 별도 협력을 통해 수정란 자체 생산을 위한 '공란우'로 활용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저지종 혈통의 안정적 확대와 유전능력 향상, 나아가 수정란 지급 기반 조성에 박차

를 가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A2 유전형질을 가진 저지종 젖소는 임실군 유가공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 진입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저지종 축군 형성 기반을 탄탄히 다져 고부가가치 낙농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산불 재난 대응력 강화

산불진화대 모의훈련 실시

순창군이 실전 같은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공공조직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지난 23일 대형 산불에 대비한 공무원 산불진화대 모의훈련을 지난 3월 실제 산불 발생현장(쌍치면 용전리 산 45)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산불 대응 역량과 지휘체계를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추진됐다. 순창군은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하며 비상 체계를 유지해 왔고, 지난 4월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공식 발족하고, 실전 중심의 모의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공무원 진화대의 초동 대응력 향상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에는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2개조 10개 팀으로 나뉘어 참여했으며, 순창소방서·경찰서·산림조합·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단체도 함께해 총 160여 명이 동원됐다. 또한, 산불 임차헬기 2대, 산불방제



차 2대, 소방펌프차 2대, 등집펌프, 불갈퀴 등 각종 진화 장비도 총출동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최영일 군수가 산불 대응본부 장으로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 과정에서 지휘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최 군수는 초기 상황 판단부터 진화 명령, 유관기관 협업 조율까지 직접 이끌어 훈련 전체를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죽항동, 사회적 고립 가구 대상 소득 서비스 제공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5월부터 6월 말까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 및 소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가구 9세대를 선정하고, 특히 외부와의 단절이 심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점숙 죽항동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새싹지킴이병원 2곳 추가 지정

남원시는 지난 23일, 특성화된 의료 역량(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특정 외과 분야 등)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새싹지킴이병원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된 미래연합의원과 마음사람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역량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며, 남원시는 2021년부터 남원의료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

고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동학대 의료 지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이며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중 2개 이상을 진료과목으로 갖춘 경우로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경우에 1개 과목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새롭게 지정된 두 곳의 새싹지킴이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춘향제 자원봉사기관 선정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춘향제 기간 펼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3일 열린 '제5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우수 자원봉사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남원상록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빵 간식 2,000개를 직접 만들어 나누는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센터는 우수 자원봉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일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

역의 주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 내 자원봉사 동아리 '꽃달림 봉사동아리'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매년 춘향제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주택 안전 위한 가정용 자율점검표 배부

순창군이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가정용 자율점검표 1만4,551부를 전 가구에 배부하며 생활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배부되는 가정용 자율점검표에는 주택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가스 △전기 △소방 △건물 안전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직접 가정 내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139개소를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표는 지난 21일 우편 발송을 통해 각 시설에 전달 완료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관내 의료기기 취급업소 지도·점검

순창군이 관내 의료기기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군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관내 의료기기 취급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의료기기 개설 및 변경신고 준수 여부,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여부, 이용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실태, 무료체험방 등 취급업소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급업소의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영농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총력 대응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영농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용수 공급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00여 개 농업용수 공급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 미비 및 노후 구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위 모니터링, 인근 수위와 연계한 물 공급, 사용량 분산 조정 등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영농기 시작부터 고온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